

Handball KOREA

핸드볼코리아

2023년 1·2월 제62호

KOREA LEAGUE

지금 SK핸드볼 코리아리그를
관통하는 네 가지 키워드

FEATURE

선수들의 또 다른 이름
등번호에 얹힌 이야기

INTERVIEW

“핸드볼에 진심”
서울시청 조수연

HANBALL

여기, 핸드볼의 미래가 있다
핸볼 페스티벌

WORLD CHAMPIONSHIP

세계의 벽 높았지만,
한국 핸드볼은 성장 중

COVER STAR

득점왕 꿈꾸는 ‘남한강 폭격기’
하남시청 신재섭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

눈앞에 펼쳐질 ICT세상, SK하이닉스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Handball

핸드볼코리아 KOREA

C O N T E N T S

2023년 1·2월 제62호



02



06



26

02 KOREA LEAGUE

지금 SK 핸드볼 코리아리그를
관통하는 네 가지 키워드

06 COVER STAR

득점왕 꿈꾸는 '남한강 폭격기'
하남시청 신재섭

12 WORLD CHAMPIONSHIP

세계의 벽 높았지만, 한국 핸드볼은 성장 중
한국 남자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 결산

16 INTERVIEW

"핸드볼에 진심"
서울시청 리더로 성장 중인 조수연

20 FEATURE

선수들의 또 다른 이름
등번호에 얹힌 그들의 이야기

24 COURT SIDE

박재범 캐스터가 바라보는 핸드볼은?
"내 인생의 자부심"

26 HANBALL

여기, 핸드볼의 미래가 있다
초등학생들의 축제 '핸볼 페스티벌'

30 BEACH HANDBALL

김현승·정진영 심판,
아시아 비치핸드볼 심판 자격 취득

32 TEAM

다져진 조직력으로 반등을 노린다!
2023년, 대성고를 주목하라

36 NEWS & READERS COMMENTS

핸드볼 뉴스 및 독자의견

제작협찬



발행일 2023년 2월 15일 | 통권 62호 | 정보간행물
기획 정규오 편집 (주)제이앤제이미디어
TEL 02-6200-1414 FAX 02-420-5337

등록번호 송파 다 00018
발행처 (사)대한핸드볼협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핸드볼경기장 3층
E-mail handball_pr@sports.or.kr

발행인 및 편집인 안지환
Homepage www.handballkorea.com



독주 혹은 혼돈

지금 SK 핸드볼 코리아리그를 관통하는 네 가지 키워드

국내 핸드볼 최강자를 가리는 '2022-2023 SK 핸드볼 코리아리그'가 열기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에 개막한 남자부(6개 팀)와 1월 6일부터 시작된 여자부(8개 팀) 모두 1라운드 일정을 마쳤다. 팀 간 탐색전을 치른 가운데 여자부는 올 시즌에도 '어우두(어차피 우승은 두산)'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두산은 시즌 초부터 독주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여자부는 광주도시공사와 삼척시청이 치열한 선두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은아(삼척시청) 등 대어급 자원들의 FA 이적, 대형 신인 가세가 그대로 판도 변화에 불을 지피면서 보는 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핸드볼코리아>는 남녀 실업핸드볼리그 1라운드를 '4가지 키워드'로 돌아봤다. (기록은 2월 8일 기준) 글. 서호민 기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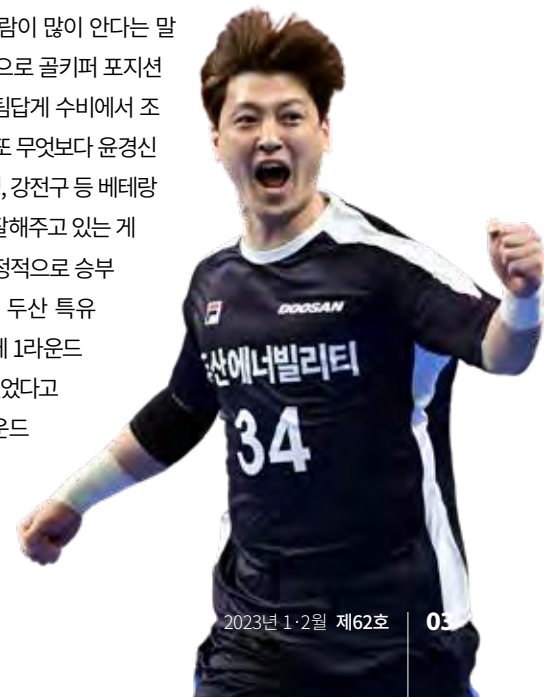
'어우두'
누가 두산을 막을 것인가

올 시즌도 '어우두'다. 두산은 2015년부터 2021-2022시즌까지 7년 연속 왕좌에 오른 명실상부 남자핸드볼 역대 최강팀이다.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라는 뜻의 '어우두'라는 줄임말은 남자부를 관통하는 단어다. '절대 1강'으로 군림했던 두산은 시즌 개막 이전까지만 해도 구창은, 황도엽, 나승도 등 기존 우승 멤버가 전력에서 이탈해 올 시즌만큼은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10월 전국체전에서 우승에 실패하자 올 시즌은 정상에 서는 팀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윤경신 두산 감독도 시즌 개막에 앞서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선수단의 40%인 7명이 새로 바뀌었다. 젊은 선수로 교체 폭이 큰 만큼 시즌 초반은 힘들고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두산은 우리가 알던 약점 없는 강팀의 모습 그대로였다. 모든 포지션이 강하고, 빠르며, 날카로웠다. 두산은 현재까지 6승 1패로 선두를 달리며 8년 연속 우승을 향해 순항 중이다. 사실 공격력만 놓고 보면 두산은 2위 인천도시공사와 3위 SK호크스에 밀린다. 두산은 9경기에서 180골을 넣어 경기당 25.7골을 기록했다. 경기당 26.7골의 SK호크스와 26.6골의 인천도시공사에 비해서는 처지는 수치다. 공격의 열세는 수비로 만회했다. 경기당 실점이 22.5골이다. 인천도시공사와 SK호크스는 각각 25.8골, 26.7골씩을 내줬다. 조태훈과 이성민은 블록샷 2위와 3위를(28개), 골키퍼 김동욱은 방어율 1위(42.35%)를 차지했다.

프로스포츠, 특히 구기 종목에서는 '공격이 강한 팀은 팬을 부르지만 수비가 강한 팀은 트로피를 부른다'는 속설이 있다. '강팀 DNA'는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 않는 법.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위라는 결과를 만든 두산이 바로 강팀임을 증명하고 있다.

JTBC 조은희 해설위원은 "솔직히 전력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는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안다는 말이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골키퍼 포지션에서 강세를 드러낸 팀답게 수비에서 조직력이 잘 발휘됐고, 또 무엇보다 윤경신 감독을 필두로 정의경, 강전구 등 베테랑들이 중심축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게 크다. 여기에 더해 결정적으로 승부처 고비를 잘 넘기는 두산 특유의 힘이 잘 발휘됐기에 1라운드 선두 질주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1라운드 두산의 상승세 요인을 분석했다.



#2

끝까지 간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여자부 순위

예상대로 여자부는 대혼전이다. 1라운드를 돈 여자부 초반 구도는 3강 1중 4약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서울시청, 경남개발공사, 대구광역시청을 제외한 4개 팀이 일대 혼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7경기에서 단 1패도 없이 6승 1무(승점 15점)로 선두에 올라 있고, 디펜딩챔피언 삼척시청(6승 1무 1패)이 2위, 부산시설공단(5승 2무 1패)이 3위로 그 뒤를 쫓고 있다. 반면, 4위 SK슈가글라이더즈(5승 1무 2패) 심해인과 송지은 등 이적생들의 부상 여파로 1라운드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적생들이 제 컨디션을 찾고 새 팀에 대한 적응을 마친다면 언제든 선두권 도약을 노릴 수 있다. 1위부터 4위까지 순위표 상단에 촘촘히 붙어 있어 2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경쟁이 뜨거운 만큼 전문가들의 예상도 엇갈린다. 조은희 해설위원은 여자부 3강을 삼척시청, 서울시청, 부산시설공단으로 분류한 가운데 SK슈가글라이더즈, 인천광역시청, 서울시청을 3중 대구광역시청을 1약으로 꼽았다. 박재범 아나운서는 이에 반해 박재범 캐스터는 "하위권 팀들의 전력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현재 4강권 이내의 팀들이 막강하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하위권 팀들에게 덤미를 잡혀 우승도 놓치고 4강권에서 떨어지는 것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만큼 전문가들도 이번 여자부 순위 판도를 예상하기 힘들다. 이제 1라운드도 끝났을 뿐이다. 리그가 진행될수록 생길 수 있는 상대팀의 집중 견제와 체력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시즌이 될 수 없다.



#3

슈퍼루키
김민서, 벌써 신인왕 독주 예약?

통합우승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에 이어 리그 2연패에 도전 중인 삼척시청은 8경기에서 6승 1무 1패로 선두 광주도시공사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1라운드 삼척시청 상승세의 주역은 이적생 베테랑 김은아도, 주장 연수진도 아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슈퍼루키’ 신인 김민서(19, 160cm)가 있다. 핸드볼 명문 황지정산고 출신인 그는 지난해 8월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제9회 세계 여자 청소년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핸드볼 강국’ 덴마크를 상대로 9골을 터트렸다.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 대회 2위에 올라 MVP 영예까지 안았다. 160cm의 작은 키에도 세계를 호령했던 그는 고향 팀에 입단해 실업무대에 데뷔했다. 김민서의 삼척시청 입단에는 운이 작용했다. 디펜딩챔피언 삼척시청은 드래프트 7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었는데 6순위까지 김민서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팀들이 김민서의 작은 키를 우려했다. 또한 포지션 중복으로 인해 다른 선수를 뽑은 팀도 있었다. 그 덕분에 삼척시청은 7순위 지명권으로도 세계대회 MVP를 품는 행운을 누렸다. 송지은, 이호진 등 기존 센터백 자원들이 이탈, 센터백 보강이 절실했던 삼척시청으로선 뜻밖의 호재에 쾌재를 불렀고, 팀의 미래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결과를 얻었다. 물론 세계무대에서 기량을 입증했음에도 기본적으로 신장이 작다 보니 실업무대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김민서는 삼척시청의 초반 상승세 중심에 우뚝 섰다.

인천광역시청과의 경기에서 데뷔한 그는 8골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 MVP까지 수상했다. 실업 무대 첫 경기를 치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특급활약이었다.

김민서의 활약상을 지켜본 조은희 해설위원은 “역대 신인 가운데 이렇게 빠르고 파워풀하면서 거기에 노련미까지 갖춘 선수는 김민서가 처음인 것 같다. 각 분야에서 정말 특출난 재능을 지니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능력은 완급 조절이다. 자기 스피드를 끌어올릴 땐 끌어올리되, 김은아 같은 베테랑들과 같이 뛸 때는 동료들의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강약 조절도 가능하다. 신인 선수가 이런 능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라고 극찬했다.

김민서는 “사실 데뷔전이라 긴장도 했었는데 언니들의 도움으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 아직 상대 팀 분석이 덜 됐다. 앞으로 내가 분석되면 이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더 성장해서 그런 부분까지 깨고 싶다”며 언니들에게 공을 돌렸다.

김민서의 활약은 계속 이어졌다. 1라운드를 마친 현재 리그 어시스트 1위(22도움), 득점 3위(24골)에 올라 있다. 신인왕 레이스에서 적수가 없는 압도적인 성적이다. 세계청소년무대에 이어 실업무대까지 접수하고 있는 김민서가 삼척시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일까. 이계청 감독은 김민서의 강점 중 하나로 ‘빠른 적응력’을 꼽았다. 이 감독은 “오프시즌, 일본 전지훈련 때부터 언니들을 잘 따르는 등 팀에 빠르게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민서가 (김)은아를 유독 잘 따른다. 베테랑 언니들의 존재도 민서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데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부터 무엇보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특출난 선수다. 특출난 재능에 노력이 더해져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칭찬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운동에 욕심이 많은 선수다. 한번은 1라운드 경기가 한창이던 지난 1월 말, 민서가 조부상을 당해 팀에서 경기를 뛰지 말고 태백에 있는 빈소에 다녀오라고 했다. 본인이 끝까지 괜찮다며 경기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경기를 끝내고 빈소에 가겠다고 하더라. 괜히 미안한 마음이었다.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웠다”고 뒷 이야기를 전했다.

이제 갓 1라운드가 지난 시점이어서 상대 팀들의 분석이 덜 된데다 신장의 약점을 안고 있기에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이계청 감독은 김민서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바라봤다. 이계청 감독은 “상대 팀들의 간파에 의한 분석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 존재한다. 그래도 워낙 본인이 욕심이 강하고 겸손한 자세를 지닌 만큼 어떠한 난관도 잘 헤쳐나갈 것이다”라고 굳건한 믿음을 드러냈다.

한편, 신인들 가운데서는 김민서 외에도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이해원(대구광역시청), 오예나(서울시청) 등이 출전 기회를 얻어내 실업무대에 적응하고 있다. 남자부에선 원광대 출신 레프트백 조동현(인천도시공사)이 가장 돋보였다. 조동현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즐비한 인천도시공사 형님들 사이에서 주전 한자리를 꿰차 7경기에 출전해 18골 10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4

개인 타이틀
요동치는 어시스트왕 경쟁

순위 싸움 못지않게 흥미로운 요소가 바로 개인 타이틀 경쟁이다. 대표적인 지표인 득점왕, 도움왕, 세이브왕을 향한 경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득점왕은 남녀부 모두 초반부터 압도적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남자부에선 신재섭(하남시청)이 60골을 기록, 2위 이요셉(상무피닉스)에 14골 차로 앞서있다. 여자부도 강경민(광주도시공사)이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 84골을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알리나(부산시설공단)와 18골 차다. 넉넉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기에 지금 같은 페이스라면 득점왕은 사실상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득점왕과 달리 어시스트왕 경쟁은 경쟁이 치열하다. 남자부는 뉴페이스의 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상무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이요셉이 46개의 어시스트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장기인 어시스트는 물론 득점까지 챙기며, 상무의 ‘해결사’이자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요셉의 뒤를 이어 지난 시즌 어시스트왕 정수영(인천도시공사)가 41개를 기록, 5개 차로 추격 중이다.

여자부는 더 치열하다. 손목 부상을 털고 돌아온 조수연이 40개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삼척시청으로 적을 옮긴 김은아(39개), 강경민(37개), 김민서(37개)가 1~3개 차이로 바짝 추격 중이다. 대구광역시청의 김아영(33개), SK슈가글라이더즈의 김소정(32개) 등도 호시탐탐 선두권을 노리고 있다. 일단 어시스트왕은 동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상대적으로 공격력이 좋은 인천도시공사, 삼척시청,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이 유리한 분위기다.

마지막으로 세이브 부문에선 상대 슈팅 101개를 막은 박재용(상무피닉스), 방어율은 42.35%를 기록한 김동욱(두산)이 각각 남자부 1위에 올라 있다. 여자부는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 오사라가 113개의 세이브를 기록, 이 부문 압도적인 1위에 오른 가운데 방어율은 박조은이 38.82%로 1위를 달리고 있다. 🌐



득점왕 꿈꾸는 ‘남한강 폭격기’ 하남시청 신재섭

‘남한강 폭격기’ 하남시청 신재섭(25, 187cm)이 올 시즌을 자신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1999년생인 신재섭은 대표적인 토끼띠 공격수다. 2019년 원광대를 졸업하고 실업 무대에 진출한 신재섭은 신인왕 수상을 시작으로 매년 눈부신 성장세를 거듭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연착륙에 성공했다. 지난 시즌 득점 2위에 이어 올 시즌에는 압도적으로 득점 선두를 질주 중이다. 2023년이 자신의 해인만큼 무언가를 보여 주겠다는 의욕과 열정도 넘쳐난다. 하남시청의 현재이자 미래 신재섭과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신재섭

소속 하남시청
포지션 라이트백
신장 187cm
출신고 원광대

Q. 어느덧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데뷔 3년차를 맞이한 신재섭 선수의 올 시즌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올 시즌 몸 상태도 좋고 무엇보다 감독님 비롯 선배 형들이 저를 믿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코트 안에서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경기 스타트부터 잘 풀렸던 게 지금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Q. 신재섭 선수 하면 득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이른 시점이지만 2위인 이요셉(상무피닉스) 선수와도 차이가 커서 득점왕에 대한 욕심도 조금 날 것 같은데요.

아직 리그 일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지금 페이스를 시즌 막판까지 유지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목표라면 지난 시즌 아쉽게 베스트 7에 선정되지 못했는데, 올 시즌에는 득점왕은 물론 베스트 7에 선정됐으면 해요.

Q. 2월 4일, SK호크스 전에서는 통산 200득점을 달성하기도 했어요.

데뷔 때부터 지도해주신 감독 선생님들께서 저를 믿고 끌어주셨기에 이런 기록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200득점은 커리어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좋은 공격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Q. 1-2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요.

이긴 경기보다 진 경기가 더 기억에 남아요. 지난해 11월 26일에 있었던 SK호크스와 경기를 꼽고 싶어요. 아깝게 1점차로 졌는데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쉽게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런데 막판에 방심하는 바람에 흐름을 내줬고 1점차로 지고 말았죠. 그때 그 경기를 잡았으면 순위에서도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Q. 데뷔 첫해 신인왕을 시작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올 시즌에는 강점인 공격적인 재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고요. 올 시즌 들어 공격에 더욱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에요.

성격상 욕심을 내기보다는 하던대로 하면 된다는 게 제 신조예요. 신인 때부터 그런 생각으로 임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다 보니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세계선수권대회 첫 출전 “아쉽지만 값진 경험”

Q. 2년 전에 대표팀에 발탁된 이후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는데요. 처음 경험한 세계선수권대회는 어땠나요.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많은 시간을 뒀지 못해 개인적으로 아쉬웠지만 한 경기 한 경기가 큰 경험이 됐어요. 직접 부딪히보면서 유럽 핸드볼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다음에 나간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주축으로 뛰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Q. 직접 경험해 본 유럽 핸드볼은 어땠나요? 어떤 점이 크게 와 닿았나요.

피지컬 부분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외국 선수들은 키가 큰데 다 힘도 강해서 저희가 주로 펼치는 피벗 플레이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또, 시야도 넓고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탄력도 다들 좋아서 수비할 때도 타이밍 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Q. 아이슬란드의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핸드볼이에요.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확실히 아이슬란드가 핸드볼 강국이라고 느꼈던 게 한국과는 다르게 관중석이 빼곡이 꽉 차 있어요. 나라의 응원 문화도 독특했고, 특히 경기 외적인 면에서 새로운 점들을 많이 느꼈어요.

Q. 홀란드 프레이타스 감독 부임 이후 두 번째 공식 대회를 치렀어요. 프레이타스 감독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삼촌 같은 분이세요. 훈련 때는 진지하면서도 코트 밖에서는 선수들에게 농담도 많이 던지는 등 유쾌하세요. 사실 외국인 지도자 분은 처음이다보니 언어적인 부분에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독님과 가까워지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Q. 프레이타스 감독님이 부임하면서 대표팀 내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우선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지 못했던 유럽식 전술이 녹아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에선 보통 선이 굵은 글라인드 패스를 많이 하는데 프레이타스 감독님께서서는 패스를 할 때도 모션을 짧게 짧게 하고 디테일적인 부분을 강조하세요. 또, 훈련 시에 축구선수 황희찬 선수가 입고 있던 검은색 브라톱을 착용해 선수들의 훈련량 등 각종 데이

터를 측정하는 시스템도 프레이타스 감독님이 부임하고 난 뒤 나타난 새로운 변화 중 하나예요.

#신재섭 #이요셉 #박세웅 “우리가 바로 핸드볼계 아삼육!”

Q. 재섭 선수의 핸드볼 인생도 알아보고 싶어요. 언제 핸드볼 공을 처음 잡았나요.

초등학교 4학년 즈음 처음 잡았어요. 제가 대전에서 나고 자랐는데 누나의 영향을 받았어요. 누나가 저보다 먼저 핸드볼을 시작했는데 매일 체육관에서 운동하길래 저도 호기심에 따라 해봤죠.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 흥미를 느껴 핸드볼부가 있는 대전 유천초에 전학 가서 본격적으로 핸드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Q. 어릴 때 다른 꿈은 없었나요.

탁구를 좋아했어요. 핸드볼 하기 전에도 탁구는 좀 쳤었는데 핸드볼 시작한 이후로는 핸드볼이 더 좋아서 핸드볼을 택하게 됐어요(웃음).

Q.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어릴 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많이 왜소했어요. 그래서 항상 주변 분들이 걱정을 하곤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조금씩 힘이 붙기 시작하더니 대학 올라가서 지금의 체격이 완성됐어요.

Q. 핸드볼 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지도자 분들을 많이 만난 덕분에 딱히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중학교 때 원길환 코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코치님께서 재밌게 알려주셨어요. 또, 같은 원손잡이라 저에게 애정을 갖고 가르쳐주시기도 했고요. 제 실력이 부족 성장하던 시기였죠.

Q. 라이트백 포지션은 언제부터 소화하게 됐던 건가요.

원래 대학교 1-2학년 때까지는 윙 포지션을 소화했다가 3-4학년 때부터 라이트백 포지션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는 윙 포지션 욕심도 많았는데 이제는 백 포지션이 딱 저한테 맞는 곳인 것 같아요.

Q. 롤 모델은 없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롤 모델은 딱히 없었는데, 같은 포지션인 정수영(인천도시공사) 선수의 플레이를 닮고 싶어요. 노련미에 기술까지 겸비한 완성형 선수잖아요. 특히 패스 능력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





Q. 동기인 이요셉, 박세웅 선수와 학창시절 주니어 대표팀에서 만난 뒤 지금까지 깊은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요.

셋 다 성격이 비슷해서 잘 맞아요. 서로 말도 많고 장난치는 걸 좋아해요. 같이 놀러도 많이 다녀요. 어쩔 때는 진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곤 해요.

Q. 세 선수 모두 훗날 남자대표팀의 주축이 될 주자들이에요.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책임감도 클 텐데요.

세 명 모두 각자 자리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이)요셉이는 어시스트에 특출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세웅이도 피벗 포지션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저희 세 명에서도 ‘우리가 훗날 대표팀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애길 하곤 해요. 각자 포지션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저희가 목표 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1살 어린 김진영 선수는 일찍이 해외로 눈을 돌려 스페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재섭 선수는 해외 리그에 진출하고 싶은 꿈은 없나요.

네. 저도 언젠가는 해외 리그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해외 리그에서 오퍼가 없긴 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가까운 일본 리그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4년 연속 4위 그친 하남시청’ “올해는 꼭 플레이오프 가고 싶어요”

Q. 2023년은 토끼띠해예요. 재섭 선수도 토끼띠인데 2023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개인상도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최우선적인 목표는 팀 우승이에요. 우리 하남시청이 4년 연속 4위만 했는데 올해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해보고 싶어요. 나아가 챔피언결정전 같은 큰 무대도 뛰어보면서 우승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Q. 신재섭 선수에게 2023년은 어떤 해로 기억됐으면 하나요.

핸드볼리그에서 하남시청이 끈적끈적하고 쉽게 지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팬들에게 각인시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한 발 더 뛰면서 근성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해요.

Q. 하남시청이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할까요.

소통은 문제없어요. 워낙 팀 분위기가 끈끈하고 또한 팀이 젊어서 패기 넘쳐요. 감독님 그리고 선배 형들이 올 시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우리 팀이 점수 차에 여유가 있을 때는 쉽게 가는데, 접전일 때는 어려운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집중하고 위기를 이겨낸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해요.

Q. 마지막으로 하남시청 일원들과 팬들에게 한 마디 남기며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 하는 건 처음이에요. 하남시청 동료들이 함께 잘해줘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와 영광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응원해주시는 팬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핸드볼이 아직 비인기종목 이미지가 강하지만 골도 많이 들어가고 속도감 있는 종목이라 재밌거든요. 한번쯤 경기장 찾아와주셔서 직접 관람하시면 핸드볼 매력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뜨거운 경기력 보여드릴 테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세계의 벽 높았지만, 한국 핸드볼은 성장 중 한국 남자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 결산

세계 벽은 역시 높았다. 홀란드 프레이타스(58·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핸드볼 대표팀이 제28회 국제핸드볼연맹(IHF) 세계남자선수권대회를 28위로 마쳤다.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사령탑을 선임하며 기대감을 키웠던 한국으로서는 아쉬운 성적표임에 분명하다. 그래도 희망을 봤다. 경기 내용이 이전과는 달랐다. 선수들도 “우리는 성장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음이 기대되는 이유다.

프레이타스 감독은 부족했던 국제무대 경험을 쌓은 자체만으로도 이번 대회 큰 수확이라고 강조했다.

글.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진짜 시험대 오른 프레이타스호

제28회 국제핸드볼연맹(IHF) 세계남자선수권대회가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폴란드와 스웨덴 공동 개최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32개국이 출전했으며 한국은 헝가리, 포르투갈, 아이슬란드와 함께 D조에 편성됐다. 남자핸드볼 세계선수권은 1938년 창설됐으며 격년제로 열리는 대회다. 우리나라가 남자핸드볼 세계선수권에 국가대표 선수단을 내보낸 것은 이

번이 2013년 스페인 대회 이후 10년 만이었다. 2015년과 2017년 대회에는 본선 진출에 실패했고, 2019년 독일-덴마크 공동 개최 대회에는 남북 단일팀이 출전했다. 또 이집트에서 열린 2021년 대회에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국내 리그 일정 등을 고려해 대학 선발이 나왔다. 이번 세계선수권은 홀란드 프레이타스(포르투갈)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사실상의 첫 국제 대회라는 의미도 있었다. 2022년 5월 대한핸드볼협회는 프레이타스 감독에게 남자 대표팀, 김 라스무센(덴마크) 감독에게 여자 대표팀 지휘봉을 각각 맡겼다. 한국 남녀 핸드볼 성인 국가대표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 선임이었다. 남녀 대표팀은 9월 한일 정기전을 통해 외국인 감독 체제

공식 데뷔전을 치렀고, 여자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으로 첫 국제 대회에 참가했다. 여자 대표팀은 아시아선수권 우승으로 첫 단추를 잘 꿰었으며, 남자 대표팀은 이번 세계선수권으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2019년 대회에는 24개 참가국 가운데 22위, 참가국 수가 32개로 늘어난 2021년에는 31위에 머물렀다. 2019년 대회 때는 남북 단일팀이 나가 하위 순위전에서 일본을 꺾었다는 의미가 있었고, 2021년 대회에는 대학 선발이 나가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것에 위안을 삼았다.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김연빈(26.두산), 장동현(28.SK), 이창우(20.

한국체대), 이요셉(25.국군체육부대), 김진영(23.아데마르 레온), 진유성(23.인천도시공사) 등 젊은 선수들을 대거 발탁했다.

최근 세계선수권대회에 본선 진출에 실패하거나, 본선에 올랐더라도 하위권 성적에 그친만큼 기대치를 높게 가지기는 쉽지 않았다. 외국인 감독이 대표팀을 지휘했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유럽 3개국과 조별리그를 치르는 대진이 험난했기 때문이다. 사실 대진운이 좀 더 따랐더라면 조 3위까지 진출하는 결선 리그에도 오를 수 있었다. 객관적인 전력상 카보베르데와 우루과이가 함께 속한 C조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조 3위를 충분히 노려볼 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질 없는 가정일 뿐이었다.

조별리그 승리 없었지만 내용은 분명 좋았다

지난해 12월 25일 폴란드로 출국한 우리 대표팀은 먼저 폴란드에서 열린 4개국 친선 대회에 출전했다. 세계선수권 전초전 격으로 열린 이 대회에는 한국과 개최국 폴란드, 브라질, 튀니지까지 4개 나라가 출전했다. 우리나라는 이 4개국 대회에서 브라질을 꺾는 등 1승 2패를 기록하며 세계선수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4개국 대회를 끝내고 조별리그 장소인 스웨덴으로 이동한 우리 대표팀은 1월 12일 헝가리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렀다. 결과는 27-35 패배였다. 전반을 11-21로 크게 뒤져 일찌감치 패색이 짙어진 우리나라는 후반 추격에 나섰지만 점수 차를 8골 줄인 것 이상의 성과는 올리지 못했다. 이 경기에서는 골키퍼 김동욱(두산)이 상대 슈팅 10개를 막아내며 선방했다.

2차전은 가장 아쉬운 내용이었다. 프레이타스 감독의 조국인 포르투갈을 상대한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24-32, 8골 차로 무릎을 꿇었다. 그래도 경기 내용은 헝가리전에 비해 훨씬 좋았다. 전반을 12-15로 비교적 잘 싸웠고, 후반에는 24-25로 1골 차까지 포르투갈을 압박했다. 경기 종료 약 9분을 남기고 1골 차로 추격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간 우리나라는 이후 하민호(인천도시공사), 이현식, 장동현(이상 SK)의 쏠이 연달아 상대 골키퍼에 막히면서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결국 이후 9분 동안 우리나라

는 한 골도 넣지 못한 가운데 내리 7실점해 결국 8골 차로 벌어진 가운데 경기가 끝났다.

3차전 아이슬란드와 경기는 25-38, 13골 차로 졌다. 이날도 헝가리와 1차전 때처럼 초반 1-6으로 끌려가며 기선을 제압 당했다.

결국 8개 조 최하위 팀들이 모여 치르는 프레지던트컵(25~32위전)으로 밀려난 한국은 하위 순위전에서 우루과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연파하며 2승을 수확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세계 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승리를 따낸 것은 2013년 이후 이번이 10년 만이었다. 2019년 대회에는 남북 단일팀이 나갔고, 2021년에는 전패를 당했지만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카보베르데가 기권한 덕에 32개국 중 31위에 올랐다. 다만 프레지던트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칠레에 패하고, 27-28위 결정전에서도 북마케도니아에 패해 결국 28위에 머문 점은 아쉬웠다.

올해 세계선수권 결승에서는 덴마크가 프랑스를 34-29로 꺾고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이 대회 3회 연속 정상을 지켰다. 덴마크와 프랑스는 2021년 도쿄올림픽 결승에서도 만나 프랑스가 25-23으로 승리, 최근 세계 남자핸드볼 '양대 산맥'으로 입지를 굳혔다. 4강은 덴마크, 프랑스 외에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로 채워졌다.

세계남자핸드볼 선수권은 1938년 1회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4강에 비유럽 국가가 진출한 것이 2001년 이집트(4위), 2005년 튀니지(4위),



2015년 카타르(준우승) 세 번이 전부다.

이번 대회에 아시아 국가로는 16위 바레인, 22위 카타르, 24위 이란, 28위 한국, 29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성적을 냈다.

젊은 골키퍼 성장, 내일이 기대되는 변화

프레이타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다음 과제는 역시 올해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이다. 한국 남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근 사례는 2010년 광저우 대회, 올림픽 본선에 나간 마지막은 2012년 런던 대회다.

아시아 선수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아시아 선수권 마지막 우승 역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대회다. 결국 한국 남자 핸드볼이 아시아 정상에서 밀려난지 10년 남짓 됐다는 의미다.

올해 아시안게임 정상에 복귀하고, 2024년 파리올림픽 본선에 진출하려면 남은 기간 국가대표 선수단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우선 김동욱, 이창우 등 젊은 골키퍼들의 성장은 긍정적인 신호다. 박찬영(40.두산), 이창우(40.인천도시공사) 등 베테랑 골키퍼의 뒤를 이을 수문장의 등장은 골문 안정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동욱은 지난해 한일 정기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대학생 선수 이창우 역시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라

이트백 김진영과 골키퍼 이창우는 각각 23세와 20세 젊은 나이에 세계선수권에 2회 연속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다. 또 이번 대회 북마케도니아와 27-28위전에서 8골을 넣은 진유성 등도 앞으로 대표팀에서 활약을 기대케 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경쟁할 주요 상대로는 역시 카타르, 바레인,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중동세와 극동 지역에서는 일본이 꼽힌다. 전통적인 강호인 카타르, 바레인 등 중동세는 유럽 선수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체격 조건이 강점으로 꼽힌다. 일본 역시 지난해 한일 정기전에서 우리나라와 1승씩 주고받았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대회까지 남은 기간 체력의 열세를 만회하기는 어렵지만 프레이타스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코칭스태프들이 경쟁 국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대비한다면 중동이나 일본 모두 우리가 넘지 못할 정도의 팀들은 아니다. 카타르는 2015년 세계선수권 준우승 전력에 비해 약해졌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우리나라가 34-23, 11골 차로 물리쳤다. 최근에는 바레인, 이란의 강세가 눈에 띄지만 올해 세계선수권에서 우리가 상대했던 유럽 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해볼 만한 전력으로 평가된다.

올해 아시안게임은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리고,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은 아시안게임 직후인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다. 🌐





“핸드볼에 진심”

서울시청 리더로 성장 중인 조수연, 아픔 딛고 화려한 날을 꿈꾸다

실업데뷔 후 처음으로 당했던 큰 부상. 이적 후 첫 시즌 아무 것도 해보지 못하고 당한 부상이었기에 아픔은 컸다. 하지만 그 부상이 그의 핸드볼 열정을 막지는 못했다. 한 차례 쓰디쓴 아픔은 오히려 내면이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고 이내 빠르게 일어섰다. 올 시즌 서울시청의 공수겸장 리더로 거듭난 조수연의 이야기다. 올 시즌 조수연의 플레이를 보고 있노라면 든든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팀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은 괜찮다며 나이에 걸맞지 않은 성숙한 모습까지 보인다. 어느 덧 10년차 베테랑 반열에 올라 선 조수연, 남은 10년은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핸드볼에 더 진심이고 싶다는 조수연을 만나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유용우 기자

잊지 못할 전국체전 우승

‘10년차’ 조수연은 실업무대 데뷔 후 확실한 색깔을 보이지 못했다. 레프트백으로서 갖춰야 할 슈팅과 패스 능력은 준수했지만 자신의 재능을 100% 보여주지 못했다. 2022-2023시즌은 다르다. 실제 조수연이 지난 1라운드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대단했다. 1라운드에 치른 8경기 동안 55골 4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득점 전체 4위-어시스트는 전체 1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그는 이내 전천후 레프트백으로 거듭났다. 그동안 수비형 선수에 가까웠던 조수연이지만 올 시즌에는 공격에도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다. 조수연은 “이전까지는 수비에 치중했다면, 올 시즌에는 (우)윙나 등 부상자들의 이탈로 공격에서도 해야될 역할이 많아졌고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하게 됐다. 단순한 부담감이 아닌 책임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수연이 가장 화려하게 빛났던 경기는 언제일까. 아마도 지난해 10월 13일, 제102회 전국체전 삼척시청과의 결승전이 아닐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소게임 양상이 전개된 가운데 그는 10골을 기록하며 팀의 2점차 접전 승리를 이끌었다. 우승후보로 꼽혔던 인천광역시청을 상대로 펄펄 날며 전국체전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그는 “한골 넣고 막고 시작부터 끝까지 60분의 모든 시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함으로 느껴진 경기였다”라고 돌아봤다.

물론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조수연은 2021-2022시즌에 앞서 FA 자격을 얻어 SK슈가글라이더즈에서 서울시청으로 이적했다. 그러나 이적 후 첫 시즌을 맞이한 조수연의 모습은 코트 위에서 찾아볼 수 없다. 훈련 중 착지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청, 그리고 조수연으로선 기대가 컸기에 아쉬움도 그만큼 더할 수밖에 없었다.

15년 핸드볼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몸에 칼을 댔다고 고백한 조수연은 “핸드볼 시작한 이후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한 적은 처음이었다. 아무래도 슈팅 핸드인 오른손을 다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기에 팀원들에게 미안함 마음도 컸다”고 돌아봤다.

어느덧 10년차, 베테랑의 책임감으로

하지만 아픔은 오히려 조수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그는 어느덧 10년차를 맞이한 베테랑이다. 팀 내 서열도 2위가 됐다. 조아람에 이은 서울시청의 둘째 언니다. 이제는 언니가 되어 동생들을 챙길 나이가 된 것이다. 그런 만큼 조수연의 책임은 막중해졌다.

조수연은 “20대 때는 그저 철없이 운동했던 것 같다. 누구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SK 시절에도 팀에 (김)은아 언니 등 베테랑 언니들이 많아서 스스로 기대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청으로 이적한 뒤 조금씩 바뀌고 있다. 나이도 이제 서른 줄에 접어든 데다 서울시청 자체가 워낙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지만 않고 언니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다. 실제 코트 안에서도 스스로 해결하자는 마인드를 터득하고 있는 과정이다. 또, 감독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해주신다”며 달라진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다.

서울시청은 최근 골키퍼 정진희, 센터백 우윙나가 투입되고 여기에 신인 오예나까지 더해 ‘젊은 팀 컬러’를 더 뚜렷하게 입었다. 팀 컬러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정연호 감독은 팀 내 영건들을 120% 활용하고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조수연이 있다. 조수연은 정연호 감독의 신뢰 아래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제가 룬송 위주로 공격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감독님께서 제 장점이 극대화 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자신있게 룬송을 시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 감독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고,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이 끌어낼 수 있었다.” 조수연의 말이다.

조수연은 2라운드 다시 서울시청의 일원으로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2라운드에는 우윙나와 정진희 등 부상자들도 복귀가 예정되어 있어 하위권에 처져있는 서울시청으로선 충분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다. 이에 대해 조수연은 “핸드볼은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부상에서 돌아오는 (우)윙나와 (정)진희와도 호흡을 잘 맞춰 팀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직 핸드볼 인생의 꽃은 피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조수연. 그는 “아직 꽃이 폈다고 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가면 갈수록 핸드볼의 재미를 알아가는 것 같고 욕심도 더 생긴다. 남은 라운드에서도 페이스를 잘 이어가 올 시즌에는 공격포인트 부문에서 5위권 내에 진입해보고 싶다. 또, 팀도 어린 선수들이 열심히 잘해주고 있는데 저 또한 언니로서 동생들을 잘 이끌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다보면 2라운드부터는 조금 더 승리하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항상 인스타그램 DM이나 편지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팬 분들이 계신다. 응원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 부상 없이 코트에서 더 재미있고 열정적인 모습 보여드릴 테니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응원해주셨으면 한다”라고 팬들을 향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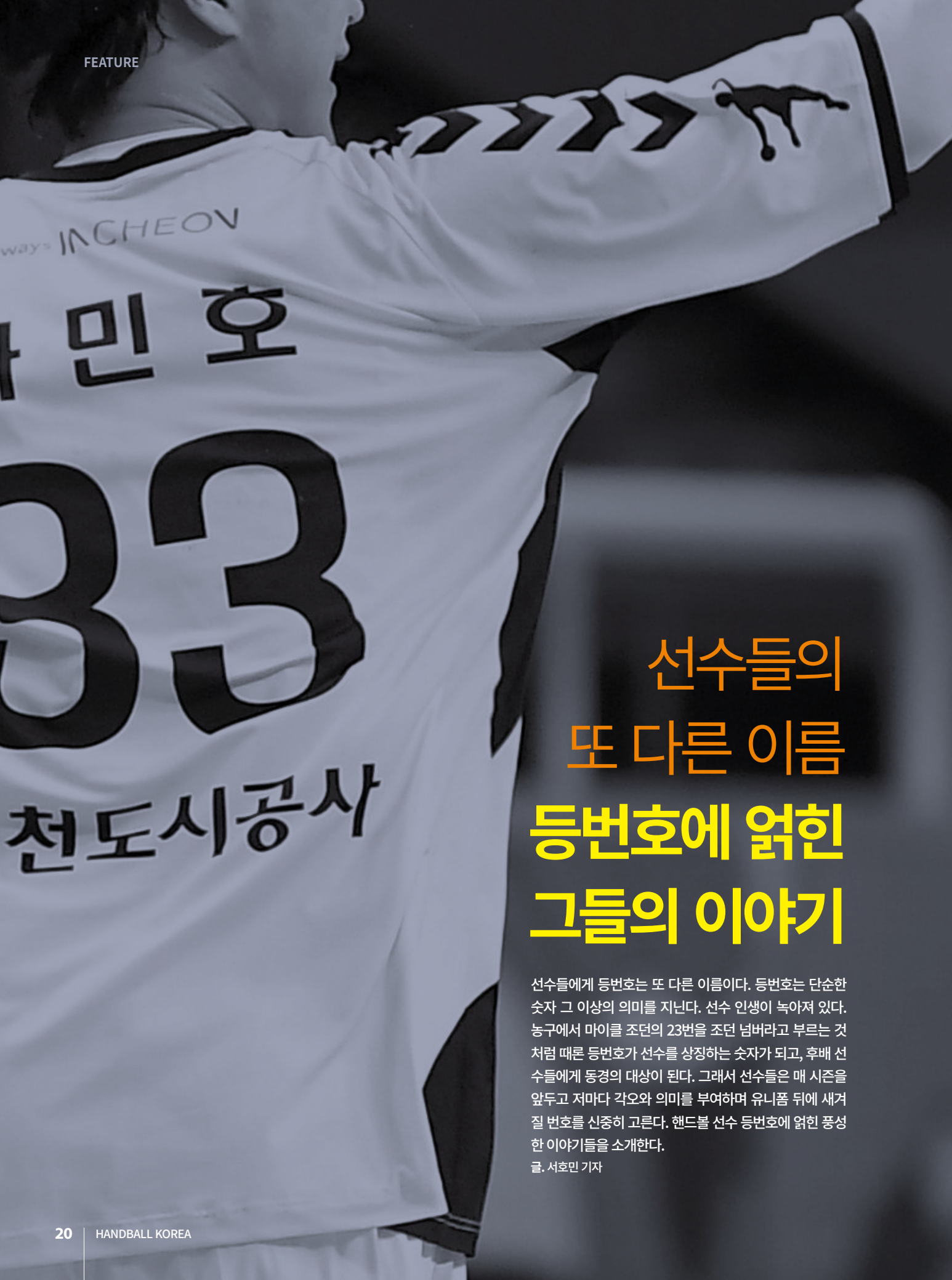
한편, 조수연은 3년 전인 2020년, <핸드볼코리아>의 5-6월 호 정진호(두산)와 함께 ‘빛나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커버스토리를 장식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조수연은 “애견카페 사장님이 되고 싶다”고 자신의 꿈을 밝히기도 했다. 3년이 지난 현재, 반려견 ‘봉자’의 주인 조수연에게 애견카페 사장님의 꿈이 여전히 유효하냐고 묻자 “지금 현재로선 애견카페 사장님보다는 핸드볼이 우선인 것 같다. 핸드볼에 더 욕심을 내고 싶다”라고 본업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덧붙여 “앞으로 더 잘해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인터뷰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핸드볼코리아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

조수연의 TMI

혈액형	A형 같은 O형
MBTI	ISFP(아싸 중에 인싸)
어릴 적 별명	개구리왕눈이
핸드볼 시작	초등학교 4학년 때, 육상선수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몸에 새겨진 타투	‘노력’, ‘도전’ 운동선수로서의 신념이 가득 담긴 문구
취미	빵집 투어
인스타그램 계정	@_____sy17

조수연	
생년월일	1994.07.06
신장/체중	171cm/65kg
출신고	성산초-휘경여중-고한국체대
소속팀	서울시청
포지션	레프트백
주요경력	2014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준우승 2017 핸드볼코리아리그 신인왕



선수들의 또 다른 이름 등번호에 얹힌 그들의 이야기

선수들에게 등번호는 또 다른 이름이다. 등번호는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선수 인생이 녹아져 있다. 농구에서 마이클 조던의 23번을 조던 넘버라고 부르는 것처럼 때론 등번호가 선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고, 후배 선수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선수들은 매 시즌을 앞두고 저마다 각오와 의미를 부여하며 유니폼 뒤에 새겨질 번호를 신중히 고른다. 핸드볼 선수 등번호에 얹힌 풍성한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글. 서호민 기자

‘7, 23, 3’ 핸드볼 선수들이 많이 쓰는 등번호

올 시즌 SK핸드볼코리아리그 남녀 14개 구단에 등록된 선수는 총 217명이다. 이 중 선수들이 사용하는 등번호는 모두 54가지. 이 중 가장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번호는 몇 번일까? 조사 결과 7번과 23번, 3번 세 가지의 번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번과 23번은 나란히 9명, 3번은 7명의 선수가 사용 중이다. 세 가지 모두 통상적으로 선수들이 즐겨 사용하는 번호다. 23번은 센터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 이미경, 삼척시청 김민서, SK슈가글라이더즈 송지은, 인천광역시청 오예달 등 각 팀의 주전 센터백들이 주로 23번을 단다. 이미경은 “처음 부산에 왔을 때 강재원 감독님께서 내가 현역 때 23번 달았는데 너도 23번을 쓰면 왠지 잘할 거 같다고 권해주셨다”며 “사실 제가 23번을 처음 달 때만 해도 리그에 23번을 쓰는 선수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23번 다는 선수들이 많아졌고, 또 우연인지 몰라도 유독 센터백 선수들이 23번을 많이 달더라”라고 얘기했다.

‘마이클 조던, 엘런 아이버슨처럼’ 롤 모델 따라 새긴 등번호

사실 ‘23’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NBA 전설 마이클 조던이다. 종목은 다르지만 23번을 대표하는 인물 조던을 보고 막연한 존경심을 품으며 23번을 택하는 선수들도 많다는 후문이다. 강전구(두산)는 “7번과 23번은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꿈의 번호이지 않나. 종목은 다르지만 조던의 영향을 받아 23번을 택하는 선수들도 종종 봤다. 나 역시



비슷한 케이스였다”고 말했다.

3번은 센터백과 공격수들이 많이 달고 뛰는 번호다. 인천도시공사 심재복, SK호크스 장동현, 충남도청 김민규, 상무피닉스 이요셉 등이 있다.

심재복이 오랜 기간 3번을 달고 뛰게 된 데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심재복은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긴 NBA 슈퍼스타 ‘엘런 아이버슨’의 영감을 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3번을 줄곧 고수해왔다고.

심재복은 “핸드볼을 시작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3번을 달고 있다. 보통 2번이나 3번은 키 작은 선수들이 많이 사용했다. 저 또한 초등학교 때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 그 당시 저를 가르치셨던 핸



드볼 코치님께서 3번을 주셨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중간 중간 잠시 다른 번호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첫 등번호였던 3번이 웬지 모르게 애착이 가서 지금까지 달고 있다”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작은 키로 NBA 무대를 장악한 앨런 아이버슨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 아이버슨도 3번을 달고 코트를 누볐는데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한다’는 명언을 듣고 작은 선수도 뛰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크다”라고 아이버슨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남다른 애착 등번호 바꾸고 달라진 선수들

후배 선수들이 등번호를 마음대로 고르는 건 쉽지 않다. 대부분 선배들이 고르고 난 뒤 남아 있는 번호를 운명의 번호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번호를 달고 오히려 경기력이 잘 풀린 선수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34번을 쓰고 있는 강전구가 그렇다.

강전구는 “지금은 34번을 쓰고 있지만 원래는 23번을 주로 사용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대표팀에 뽑혔을 때 사용하고 있던 23번을 다른 선수가 쓰게 됐고, 고민 끝에 23번의 이어지는 번호인 34번을 선택했다. 공교롭게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4번을 처음 달고 뛰었는데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 이후로 소속팀으로 돌아와서도 34번을 줄곧 달게 됐다”라며 번호를 정한 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때 강전구 등번호는 7번. 그 사연은 이랬다. 강전구는 “오주안 선수가 소속팀 등번호인 34번을 대표팀에서도 쓰고 싶어 하길래 흔쾌히 내줬다. 몇 번을 달까 고민하다가 마침 행운의 숫자가 비어서 7번을 선택하게 됐다. 사실 등번호에 크게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니다. 그래도 지금 소속팀에서 달고 있는 34번이 마음에 든다”고 설



명했다. 9번을 달고 있는 김온아(삼척시청)는 “SK 시절 23번 달았던 것을 제외하면 9번을 줄곧 달고 뛰었다. 처음부터 9번이 좋아서 달고 뛴 건 아니다. 인천시청 처음 입단했을 때, 제가 사용하고 싶던 번호가 언니들이 쓰고 있었고 남아있던 번호 중에 9번이 그나마 마음에 들어서 9번을 달게 됐다”며 “대표팀에서는 3번, 23번, 7번 등 여러 번호를 사용해봤는데 특히 3번을 달고 뛸 때 부상이 많았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9번으로 바꾼 뒤에는 부상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건강히 코트에서 뛸 수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간다”라고 말했다.



개성 만점 등번호에 담긴 다양각색 사연들

현재 남자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신재섭(하남시청)은 13번을 달고 있다. 3번, 13번 등 ‘3’이 들어가는 숫자는 센터백 혹은 라이트백의 상징이더라도 한 것일까? 신재섭은 “다른 번호도 많이 사용해봤는데 제 포지션에서는 그래도 13번이 가장 잘 어울리고 상징적인 번호가 아닌가 싶다. 라이트백 하면 딱 13번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웃음)”라고 웃었다. 보통 선수들이 3번 혹은 20번대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피벗 혹은 골키퍼들은 대부분 높은 숫자의 번호를 많이 사용한다. 피벗 포지션에 속하는 정진호, 진유성(이상 인천도시공사), 박세웅(SK 호크스), 원민준(상무피닉스) 등은 60번대, 70번대 번호를 사용하는 선수들이다.

하지만 79번을 달고 있는 박세웅은 다른 의미에서 자신의 등번호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세웅은 “나름의 사연이 있다(웃음). 처음 등번호를 고를 때, 행운의 숫자인 7을 첫 자리로 선택했고 그 다음 번호를 생각했는데 숫자 1부터 10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9가 그래도 높은 숫자이지 않나. 10보다는 하나 낮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실력적으로 숫자 9만큼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행운과 실력을 겸비한 79번을 선택하게 됐다. 원광대 시절부터 이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 번호에 만족하기 보다는 잘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의미 부여 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여자부 득점 1위를 기록 중인 강경민(광주도시공사)은 실업 무대 진출 이후 24번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케이스다. 사람들은 “23번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경민이 속사정은 달랐다. 강경민은 “학교 다닐 때는 주로 20번을 많이 달았다. 20살에 처음 광주도시공사에 입단했을 때, 그동안 한 번도 달지 못했던 번호를 쓰고 싶었다. 제가 입단할 당시만 해도 24번을 달고 뛰는 선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동기인 대구광역시청의 황은진 선수에게 우리 우정을 담아 똑같이 24번을 달고 뛰자고 얘기했고, 24번을 달게 됐다. 24번이 원래 흔한 번호가 아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이후로 지금은 흔해진 번호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선수의 등번호에는 참으로 재밌으면서도 슬픈 많은 사연들이 제 각각 숨어있다. 따라서 선수의 등번호에 담긴 에피소드를 찾아보는 것도 핸드볼을 더욱 재밌게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박재범 캐스터가 바라보는 핸드볼은?

“내 인생의 자부심”

코트 곳곳에는 선수들 외에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동분서주 발로 뛰며 무한한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선수만큼 쉽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그래서 <핸드볼코리아>가 코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자칭 “대한민국에서 가장 핸드볼을 사랑하는 스포츠 캐스터”다. 핸드볼에 대한 진심과 애정을 가득 담아, 팬들에게 이를 뜨겁게 전달하고 있는 박재범 캐스터(41)를 만나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본인 제공

Q. 요즘 어떻게 지내나?

탁구 프로리그 중계를 주로 다니고 있고, 또 간간히 드라마 속 아나운서 배역 촬영을 하기도 한다. 아 물론 올 시즌에도 핸드볼리그 인터넷 중계도 계속한다. tv 중계 횟수가 늘어, 반대로 개별 인터넷 중계는 줄어들어 아쉽기는 하지만(웃음). 여자핸드볼리그가 개막해 톱툼이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경기장에 가서 보는 편이다. 얼마 전에는 부산 기장체육관에 다녀오기도 했다.

Q. 스포츠캐스터로서 첫 중계가 핸드볼이었다. 2015년에 데뷔를 했는데 첫 경기 중계는 기억나는지?

당시만 해도 인터넷 중계가 보급되지 얼마 안 됐을 시기라 알음알음 알던 시절이었다. 원래 핸드볼 중계를 하던 분이 다른 방송사로 이직해 자리가 비게 됐고 나한테 제의가 들어왔다. 첫 중계는 김천에서 열린 중고협회장배 엘리트 대회였던 걸로 기억한다. 여중부 경기가 지금 핸드볼리그에서 활약하는 오예달, 우빛나, 이민지 등의 유년기 시절이었다. 그때는 완전 초짜였으니까 중계 진행 능력이 많이 미숙했다. 중계 멘트로 “오예달, 오예달”만 줄곧 외쳤다. 모니터링 해주는 동생들이 보면서 ‘오예달 삼촌’이라고 놀렸던 기억도 난다.

Q. 축구, 농구 등 역동적인 종목을 좋아한다고 알고 있다. 핸드볼은 중계 마이크를 잡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었나?

어릴 때부터 많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봤는데 그 중에서도 핸드볼을 즐겨보는 편이었다. 어렸을 때, KBS에서 주로 낮 시간대에 핸드볼은 잔치 중계를 많이 해줬는데 마침 그 시간대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올 때라 다른 종목보다 핸드볼을 더 많이 접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막 전문적으로 보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림픽 등 큰 행사들은 꼬박 챙겨 봤었고 윤경신 감독님을 비롯한 여러 레전드 분들도 알고 있었다.

Q.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나?

핸드볼은 타 종목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역동적이면서 빠르고 원초적인 몸싸움이 가능한 종목이다. 몸싸움이 격하면 선수들끼리 시비가 붙거나 경기가 과열될 법도 한데 핸드볼에선 그런 장면을 찾아보기 힘들다. 몸으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몸싸움은 당연히 되는 거다. 그런 점에 묘한 매력을 느꼈고 지금도 후배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카데미 수업에서 핸드볼을 소개할 때 그런 생소한 매력을 어필하곤 한다.

Q. 중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게 있다면?

농구 등 타 종목과는 달리 아직까지 핸드볼은 기록적인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팬들은 누가 득점왕을 몇 번하고 최다득점이 몇 점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를 위해 중계를 할 때 기록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게 된다. 또, 핸드볼은 득점, 어시스트, 세이브 등 크게 3가지 지표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 3가지 지표 말고도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기록들도 많다. 다만, 요즘에는 이런 세세한 기록들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 라이트한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Q. 심판 자격증까지 취득했다고 들었다.

초창기 때 핸드볼을 공부하다가 심판 분들에게 규칙과 관련해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그 중 구본옥 심판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심판자격증 한번 따볼래’라는 한마디와 함께 시작이 됐다. 심판 분들처럼 완벽한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체력장부터 시작해 나를 열심히 준비했었다. 결과적으로 심판자격증을 딴 게 핸드볼 중계하는 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 진행을 할 때에 용이하며, 심판들의 수신호를 보고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긴다. 또, 먼저 상황을 알게 되면 해야 할 말들과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을 구분할 수 있다. 지금도 구본옥 심판한테 고마움을 느낀다.

Q. 2017년과 2019년에는 핸드볼 세계 선수권을 보러 직접 다녀오기도 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세계선수권대회 분위기는 어땠나.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장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전쟁(戰場) 분위기에 휩싸인다. 간혹 축구장의 홀리건처럼 폭력성을 띄기도 한다. 그만큼 응원 열기가 엄청나다. 그 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 특히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첫 경기에선 권한나가 네덜란드와 첫 경기 4분 만에 부상으로 빠지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팀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어 승승장구했다. 안타깝게도 권한나는 부상으로 채굴 부상으로 당시 대회에서 하차했는데, 선수들이 권한나의 유니폼을 벤치에 걸어두는 등 원팀 정신도 느낄 수 있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렸던 2019년 대회는 당시 송해수를 비롯해 갓 대표팀에 발탁된 어린 선수들을 인터뷰했던 기억이 난다.

Q. 3년 전 ‘핸썸보이즈’라는 이름을 내걸고 국내 유일의 핸드볼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아쉬

게도 초반부 기대에 비해 오래가지는 못했는데.

김혜민 전력분석관, 박주일 감독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에서 팟캐스트 방송을 했다. 선수들을 초대해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풀어내면서 팬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 대로 반응이 괜찮았는데, 저를 포함한 패널들의 사정상 꾸준히 가지는 못했다. 시스템 상 한계도 분명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면 더 재밌고 풍성한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다.

Q. “대한민국에서 핸드볼을 가장 사랑하는 캐스터 박재범입니다”라는 멘트가 이제는 자신만의 시그니처 멘트가 됐다. 이 멘트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중계에서 나를 알릴 수 있는 멘트가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사실 처음에는 “아이러브 핸드볼”이라는 문구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무언가 애정이 담긴 멘트면 더 좋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지금 멘트로 정하게 됐다. (핸드볼은) 나한테는 특별한 존재다. 첫 중계 종목이라 아무래도 남다르기도 하고 핸드볼로 인해 농구, 배구 등 대학리그 중계를 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됐다. 또, 많은 분들이 핸드볼을 사랑해줬으면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Q. 핸드볼이 프로화를 앞두고 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핸드볼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감도 있을 텐데.

기대가 크다. 프로화가 된다면 중계 환경도 좋아질 테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중계나 콘텐츠들이 생산될 것이다. 한국 여자핸드볼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져야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적인 부분은 물론 팬 서비스, 프로 의식 등도 더 좋아져야 할 것이다. 유니폼 역시도 좀 더 특색을 살려 멋지게 제작됐으면 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핸드볼은 알면 알수록 재밌는 종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계를 할 때도 팬들이 몰랐던 부분이나 생소한 매력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고 싶다. 또, 팬들이 더 많아져야 선수들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좋은 플레이를 펼칠 거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열정과 진심을 담아 재밌게 중계를 하고 싶다. 팬들에게는 핸드볼에 진심인 캐스터로 기억되고 싶다. 🌍



핸볼이란?

대한핸드볼협회는 “학교용 스포츠개발 종목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대한체육회의 정책에 따라 핸볼을 개발했다. 1억 2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지난해 3억 8천만원을 들여 보급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시범학교로 13개가 선정됐고, 올해는 60개 학교에 보급 확대될 예정이다. 핸볼 페스티벌의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 앞서 핸볼의 규칙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우선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핸볼은 핸드볼과 달리 골대에 골키퍼가 없다. 대신 작게 만든 골대 그물망에 5개의 구멍이 나 있다. 중앙 동그란 구멍에 슛을 성공시키면 2점, 모서리 부문 4개의 네모 구멍에 넣으면 1점을 획득한다. 경기는 6대6 또는 5대5, 4대4로도 가능하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경기를 하지만, 혼성팀을 이룬 매치도 가능하다. 코트 규격도 넓지 않아 체력 소모도 적다는 것도 핸볼의 메리트 중 하나다.

기존 핸드볼이 전·후반 30분씩 길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핸볼은 3세트제(세트당 7점제 또는 10분)로 운영된다. 때문에 점수 차가 크게 나면 포기하는 핸드볼의 단점도 보완해 아이들에게 흥미와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데 효과가 있다.

공도 딱딱하지 않고 작아 부상의 위험성도 낮다. 부드럽게 뛰면서 잘 튕는 공을 사용하는 핸볼은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남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데다 골도 많이 나와 학생들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여기, 핸드볼의 미래가 있다 초등학생들의 축제 ‘핸볼 페스티벌’

<핸드볼코리아>는 지난해에 이른바 ‘미니 핸드볼’이라 불리는 핸볼(Hanball)을 소개한 바 있다.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뉴스포츠로 남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교형 스포츠를 꿈꾸는 핸볼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올해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학교형 스포츠 핸볼의 보급과 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한 첫 번째 리그대회가 2022년 12월 14일 동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된 데 이어 그 여세를 몰아 2023년 새해를 맞아 1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 두 번째 리그대회를 개최했다. 핸볼 꿈나무들의 열정과 재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핸볼 페스티벌 현장 분위기를 생생히 전해본다.

글. 서호민 기자 자문. 스포츠인텔리전스 김은진 팀장

한바탕 신나게 놀았던 하루

지난해 말 열렸던 첫 번째 리그 대회가 보급학교 간 교류 및 학생들의 핸볼에 대한 이해도를 가능하기 위한 전초전이였다면, 이번 행사는 참가 팀의 확대 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시화 창작대회 등 부수적인 이벤트를 추가한 페스티벌 성격의 대회였다. 이날 핸볼 페스티벌에는 서울 동부초등 등 18개 학교에서 온 120여명의 학생들이 출전해 핸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즐겼다.

경쟁과 승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유소년들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페스티벌의 성격을 추구한 대회인 만큼, 핸볼과 관련해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기획됐다.

경기장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시화를 창작하고, 페이스페인팅을 즐기는 리터러시(Literacy) 존과 핸드볼 골키퍼 체험

존인 디지털 존이 운영됐다. 생소할 수 있는 핸볼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회 측의 배려였다. 아이들에게는 지루할 틈을 주지 않은 알찬 놀이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행사가 열린 SK핸드볼 경기장에는 만화 로봇 태권브이의 신나는 선율에 ‘핸볼’ 구호 등을 삽입해 편곡한 ‘핸볼’ 로고송이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노래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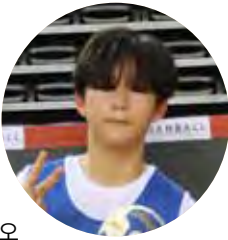
이번 핸볼 페스티벌에는 18개 팀이 남자부, 여자부, 혼성부로 나뉘어 경기를 치른 가운데 남자부에선 SOS, 여자는 CBT, 혼성부에선 챔피언 팀이 각각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행사에는 심판과 기록원으로 참가한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경기 외적으로도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기며 단 하루의 핸볼 축제를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골대 양 사이를 오가며 열띤 승부를 펼치다보니 어느 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다. 각 종별 결승전과 시상식,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첫 번째 핸볼 축제는 무사히 막을 내렸다. 치열했던 결승 무대에 이어 열린 시상식에선 장리라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이 “앞으로 핸볼 보급과 발전을 위해 협회가 더 애쓰고, 핸볼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 역시 앞으로 더 많이 개최하겠다”고 약속해 참가 팀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의 상황에는 협회 뿐만 아니라 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했던 (주)퀴즈스포츠앤라이프스타일과 스포츠인텔리전스(SPORTS INTELLIGENCE)의 역할도 컸다. 스포츠인텔리전스 김은진 팀장은 “대한핸드볼협회를 비롯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스텝들이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성공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사실 이번 행사에는 핸볼 시범학교 말고도 핸볼에 생소한 일반 학교 학생들을 섭외해 수준 차이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핸볼 페스티벌에 앞서 2주 간 특훈을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 학생, 지도자, 그리고 공정한 판정으로 대회 품격에 기여해주신 심판 분들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다음 행사를 기약하며 기대와 희망을 갖지 않았나 싶다”고 대회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핸볼로 인해 핸드볼 열정 다시 끌어올라” 핸드볼 유망주 박유찬 군의 이야기

이번 핸볼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 가운데 유독 큰 관심을 받은 선수가 있었다. 동부초교 핸드볼부에서 활동 중인 박유찬 군이 그 주인공. 박 군은 경기 내내 굳게일하처럼 공중에 솟구쳐 오르며 강력한 왼손 중거리슛을 폭발시켜 눈길을 사로잡았다.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저 학생은 여기서 놀 레벨이 아니다”, “역시 핸드볼을 배운 선수는 다르다”라는 등 박 군의 실력을 두고 호평이 자자했다. 사실 박 군은 핸볼과 관련해 나름의 사연이 있는 선수다. 행사 도중 만난 박 군은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부초에서 정식으로 핸드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흥미를 잃어 잠시 쉬 적이 있었다”라며 “그런데 작년에 학교 체육 수업 시간에 핸볼을 처음 접하게 됐고, 핸볼의 매력을 느껴 다시 핸드볼부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그가 느낀 핸볼의 매력은 무엇일까. 말을 이어간 박 군은 “골 넣는 재미가 있다. 또, 규칙상 골키퍼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중거리슛을 많이 시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핸볼로 인해 잠시 사라졌던 핸드볼 열정을 다시 되찾은 박 군. 그는 “나의 꿈은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앞으로도 핸볼, 핸드볼 둘다 열심히 할 것”이라며 핸드볼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핸볼, 엘리트 선수 발굴의 희망을 노래하다

핸볼은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 중 하나다. 초등학생들이 쉽게 놀이할 수 있도록 기존 핸드볼을 변형해 만든 뉴스포츠이지만 궁극적인 방향성은 생활체육을 통해 엘리트 유망주를 발굴하거나 핸드볼의 밑바탕을 튼튼히하는 데 있다. 핸볼 개발과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핸드볼협회 조은희 핸드볼저변확대이사는 “핸드볼의 경우, 엘리트 선수 수급이 전무한 수준이다. 핸볼을 통해 아이들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효과도 얻겠지만, 박유찬 군의 사례와 같이 엘리트 선수를 발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이사는 “올해부터는 핸볼을 전국적으로 보급해 체육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농구 3x3 종목의 탄생으로 많은 생활체육 선수들이 농구선수로서 꿈을 키우지 않았나. 핸볼 역시 3x3를 모델 삼아 엘리트체육의 저변 확대 및 꿈나무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보급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규칙을 세분화하고 난이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핸볼이 향후 토대를 잘 만들어 학교형스포츠의 대표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확보 및 지도활동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핸볼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인텔리전스 김은진 팀장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 팀장은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학교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핸볼을 알리고 보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

라며 “더 많은 학교들이 핸볼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핸볼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도 정기적인 교육, 연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회와 협업을 통해 핸볼 보급 방안과 지도자 연수 등에 대한 시스템을 잘 정립해나가기로 하겠다”라고 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미니 핸드볼 ‘핸볼’의 등장으로 한국 유소년 핸드볼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은 조금씩 일고 있다. 이제는 협회와 관련 단체들이 앞으로 어떤 콘텐츠로 핸볼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아이들의 니즈를 계속해서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핸볼의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한국 유소년 핸드볼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핸볼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핸볼 페스티벌에 참여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

한은찬 군(인천석암초6)

“SSG 리틀 야구단에 다니고 있는데 야구단에서 핸볼 수업을 한번 한적이 있다. 그 이후로 흥미에 빠져 이번 축제에도 참가하게 됐다. 매 순간 순간마다 긴장감이 넘치며 굉장히 재미있다. 약간 손으로 하는 축구 같은 느낌이다.”

김비주 양(인천하늘초6)

“작년에 친구가 하길래 호기심에 따라 해봤는데 나한테 재밌고 잘 맞았다. 아기가 하려면 남녀가 다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또 골키퍼가 없어서 슛을 때리는 데 큰 제한이 없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핸볼을 계속 할 거다.”

부천남초 최천규 교사

“우리 학교는 핸볼 시범학교도 아니라 처음에 참가 접수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될지 고민이 많았다. 다행히 협회 측에서 핸볼 스포츠캠프를 열어주셔서 2주 동안 짧게나마 아이들과 규칙을 익히고 손발을 맞추는 등 준비할 수 있었다. 승패보다는 핸볼이라는 뉴스포츠가 이런 종목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다. 또, 부상자 없이 무사히 잘 마쳤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고, 다음에도 이런 축제가 열린다면 참가하고 싶다.”

인천하늘초 국승욱 교사

“보통의 체육 종목은 남녀가 다 같이 즐길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 핸볼은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가 즐길 수 있다는 게 교사 입장에서 참 좋은 것 같다. 또, 이번 행사를 통해 느낀 점은 핸볼은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다. 경기에 뛰는 인원 뿐만 아니라 경기에 뛰지 않는 인원도 심판과 기록원 역할을 하는 등 누구나 소외될 거 없이 역할 분담이 잘 이뤄져 있었다. 앞으로 전국에 있는 학교들에 더 많이 보급되고, 지도자 교육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충분히 체육 교과서에도 소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가 이뤄졌으면 한다.”

해변 위의 포청천이 되다!

김현승·정진영 심판, 아시아 비치핸드볼 심판 자격 취득



대한민국 최초의 비치핸드볼 국제심판이 탄생했다. 김현승·정진영 심판이 바로 그들이다. 꿈나무들의 핸드볼을 가르치기도 하고, 실내 핸드볼 심판으로 일하기도 했던 김현승·정진영 심판은 국내 비치핸드볼의 저변 확대를 꿈꾸며 1호가 되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훌륭하게 자격 취득 코스를 통과하며 최초의 비치핸드볼 심판이 된 두 심판은 공정하고 투명한 판정을 다짐하며 해변 위에 설 준비를 마쳤다.

글. 김희수 기자 사진. 아시아핸드볼연맹 제공. 본인 제공

비치핸드볼에 대한 열정으로

언어 장벽 뛰어넘다

아시아 대륙 비치핸드볼 심판 자격 취득 코스가 태국 방콕의 태국 국립스포츠대학에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바레인, 이란, 쿠웨이트,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까지 총 9개국에서 12쌍의 파트너 심판들이 코스에 참여했고, 참가자 전원이 아시아 대륙 심판 자격을 취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현승·정진영 심판이 대표로 참여해 자격을 취득했다. 두 심판은 이제 아시아에서 열리는 비치핸드볼 경기를 주관할 수 있다. 먼저 5일간 진행된 자격 취득 코스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궁금했다. 정진영 심판은 “가장 먼저 체력 테스트가 진행된다. 이후에는 룰북 테

스트를 진행한다. 3일 동안 치러지는 테스트들에서 모두 기준점을 통과해야 후속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에는 실제로 경기를 진행해 보는 실습도 진행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두 심판은 “룰북 테스트가 가장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승 심판은 “룰북 테스트는 필기로도 보고, 실기로도 본다. 룰북의 모든 용어가 다 영어라서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언어의 장벽은 룰북을 상대로만 느낀 것이 아니었다. 함께 코스에 참여한 타국 참가자들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두 심판은 나름의 방식으로 언어의 장벽을 극복했다. 정 심판은 “사전에 비치핸드볼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왔다”라며 연습을 강조한 반면, 김 심판은 “그냥 부딪혔다. 영어를 못하더라도 대화를 많이

했다. 특히 사우디, 태국 후보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과감함으로 승부했음을 밝혔다.

비치핸드볼은 2점슛이 존재한다. 스카이슛이나 360도 회전슛처럼 창의적인 플레이로 득점했다고 심판이 판단할 경우 2점이 주어진다. 정확한 상황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터. 김현승 심판도 “심판 취득 실기 과정에서 2점 플레이를 인정하기 위한 회전수를 확인하는 부분 같은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2점 플레이가 인정되는 기준은 정 심판의 설명을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심판은 “2점 플레이의 가장 기본인 회전슛의 경우, 몸이 돌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선수가 뛸 때 발 모양과 착지했을 때의 발 모양 차이로 판단한다. 다만 아시아핸드볼연맹(AHF)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봐주자는 주의더라. 엄격한 판정보다는 경기의 재미를 추구하는 방향성이다”라고 코스에서 배운 2점 플레이 판독 요령을 알려줬다.

두 심판의 특별한 만남

“찰떡 호흡으로 공정한 경기 만들겠다”

두 심판은 파트너로 참석해 5일간 동고동락했다. 어떤 과정을 거쳐 팀을 이루게 됐을까. 김 심판은 “정진영 심판께서 먼저 자격 취득을 준비하시면서 파트너를 찾고 계셨다. 한국 비치핸드볼 TF팀의 구본욱 심판께서 나에게 정 심판의 파트너가 돼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셨고, 흔쾌히 수락했다”고 팀 구성 과정을 들려줬다. 김 심판은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파트너가 누구인지도 중요하다. 일반 핸드볼은 득점이 나오면 경기장 중앙으로 돌아와 경기를 재개하지만 비치핸드볼은 그런 거 없이 공수 전환이 빠르다. 심판으로서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파트너가 내가 놓치는 부분을 커버해줘야 한다”며 파트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양양에서 열린 이벤트 매치로 비치핸드볼을 처음 접했다고 밝힌 정 심판은 “그때까지만 해도 심판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다. 그때는 심판은 물론이고 전문 비치핸드볼 선수도 아직 없었다. 그래서 심판 자격 취득 코스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 힘들기도 했다”고 심판을 하기 로 마음먹은 당시를 돌아봤다.

정 심판은 “일반 핸드볼은 전용 경기장도 필요하고, 인원수도 비치핸드볼보다 많이 필요하다. 비치핸드볼이 그런 면에서는 일반 핸드볼보



다 접근성이 좋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치핸드볼을 접할 수 있도록 양양 이벤트 매치와 같은 기회가 해운대나 경포대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수욕장에서 다시 열리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향후 계획도 들려줬다. 정 심판은 “우선 3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에 심판으로 배정받은 상태다. AHF 주관 대회들을 잘 치르면서 국제핸드볼연맹(IHF) 자격 취득까지 도전해보겠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김 심판은 “실내 핸드볼 심판 자격증이 아직 없다. 실내 심판 자격증도 따면서, 앞으로 심판의 길을 더 폭넓게 걸어보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두 심판은 비치핸드볼 심판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남겼다.

비치핸드볼 심판의 길잡이가 돼 주겠다고 각오를 전한 정 심판은 “저희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무엇보다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 비치핸드볼을 다양하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심판의 꿈은 당연히 꿀 수 없다. 즐기다 보면 꿈을 가지게 될 거다. 더 많은 분들이 비치핸드볼을 접하고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심판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조언을 건넸다.

이어 김현승 심판도 “비치핸드볼 심판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체력이 좋아야 한다. 영어도 능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트너가 누군지도 중요하다! (웃음)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다져진 조직력으로 반등을 노린다! 2023년, 대성고를 주목하라

대전 대성고등학교의 2022년은 아쉬움이 가득한 해였다. 2019년 핸드볼코리아 전국 중고등 핸드볼대회 우승 · 2020년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 중고등 핸드볼대회 우승 · 2021년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위 등 매 해 좋은 성과를 내왔던 대성고였지만, 1·2학년 위주로 선수단이 구성됐던 2022년은 경험과 조직력을 쌓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2023년 새해, 주축 선수들을 그대로 유지한 대성고는 반등을 노린다. 뜻깊은 한 해를 만들기 위해 겨울방학에도 맹훈련을 이어가는 대성고 핸드볼 팀을 만나러 <핸드볼코리아>가 대전으로 향했다.

글. 김희수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2008년 창단한 대전 대성고등학교 핸드볼부는 안준기, 정관중, 박동광, 박재용, 신재섭, 송제우, 이창우 등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한 대전의 핸드볼 명문이다. 각종 대회에서 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린 대성고지만, 아직 들어 올리지 못한 우승컵이 있다. 바로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우승컵이다.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했지만 인천 정석항공과학고에 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겨울방학임에도 선수들은 전국체전 우승이라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에 훈련에 매진한다. <핸드볼코리아>가 대성고 체육관을 방문한 1월 19일에도 대성고 핸드볼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훈련에 몰두하고 있었다. 열정적으로 선수단을 지휘하고 있던 대성고 윤하늘 코치와 잠시 이야

기를 나눌 수 있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던 윤 코치는 인터뷰가 시작되자 “대성고 핸드볼부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다”며 다소 긴장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말이 없는 핸드볼은 죽은 핸드볼이에요”

윤 코치에게 가장 먼저 대성고 핸드볼부의 팀 컬러에 대해 물었다. 윤 코치는 “우리 팀은 낙관론으로 뚝뚝 뭉친 팀이다”라는 다소 독특한 답변을 들려줬다. 윤 코치는 “우리 선수들은 포기하고 싶고 힘든 순간에도 성실하고 즐겁게 임하고 있다. 그 어떤 것보다 큰 무기라고 생각한다”며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칭찬했다. 윤 코치는 훈련 과정에서

도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인성과 소통을 강조했다. 윤 코치는 “선수들은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고,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그래서 인성을 가장 먼저 중시한다. 경기 안에서는 선수들 간의 소통을 강조한다. 말이 없는 핸드볼은 죽은 핸드볼이다. 경기 중에도 계속 대화를 할 수 있게 유도한다”고 훈련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들려줬다.

윤 코치의 이야기처럼 선수들은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다. 핸드볼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충실히 임해야 한다. 윤 코치 역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윤 코치는 “커서 사회에 나갈 때 필요한 기초 지식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갖춰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팀은 매주 스포츠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작성한다. 또 전원 한자 3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도 함께 하고 있다. 지금은 절반 정도가 취득한 상태다”라며 선수들의 학업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목표는 전국체전 우승입니다.
선수들의 절실함을 보고 싶어요”**

2022년은 대성고에게 숨 고르기의 시간이었다. 선수들의 경험 부족

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윤 코치는 “지난해는 대부분의 팀들이 3학년 을 주축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1, 2학년이 주축인 팀이었다. 그래서 다들 아쉬운 성적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다. 그래도 결과가 아쉬웠던 건 사실이었다. 이번 시즌은 지난해의 주축 멤버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더 기대할 요소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덧붙여 윤 코치는 “올해의 목표는 물론 우승이다. 특히 전국체전 우승이 가장 큰 목표다. 대성고 핸드볼부 창단 이래 전국체전 우승이 아직 없다. 준우승만 해봤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선수들이 핸드볼에 더 전념해야 한다. 모든 시간을 핸드볼에만 쏟으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절실함을 보고 싶다”며 선수들의 분발을 바랐다.

선수들이 더 노력할 수 있는 동기는 이제 전국체전 우승뿐만이 아니다. 핸드볼 프로 리그의 창설도 선수들에게는 큰 동기 부여가 된다. 윤 코치는 “기존에는 선수들이



보통 대학에 진학해서 운동을 이어가다가 실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로였다. 지금은 프로 리그가 창설되면서 선수들에게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생겼다”며 미소를 지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윤 코치에게도 프로 리그 창설은 기회였다. 윤 코치는 “최근 모든 팀이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팀은 복수초등학교-글꼴 중학교를 거치면서 어릴 때부터 핸드볼을 해온 선수들 위주로 선수를 수급해왔지만, 이것도 최근에는 쉽지 않다. 프로 리그가 창설되면 핸드볼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 같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인터뷰를 마치며 윤 코치는 대성고 핸드볼부를 응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과연 윤 코치와 대성고 선수들의 2023년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에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선수들에게 분명히 기회는 온다고 이야기했어. 올해는 열심히 하면 꼭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성인들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올해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문 1답

대성고 핸드볼부 주장 강세현(3학년, RB)

Q. 나의 플레이 스타일을 설명하는 걸로 자기소개를 대신해볼게요!

대성고 핸드볼부 주장 강세현입니다! 저는 1:1 매치업을 즐기는 라이트백이에요. 상대의 빈 공간을 파고드는 플레이를 선호하고, 기회가 오면 중거리 슈팅도 과감하게 시도하는 편입니다.

Q. 주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본인은 몇 점짜리 주장이라고 생각하나요.

경기를 뛰거나 훈련을 할 때 팀 분위기가 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감독님, 코치님에게 가끔 혼나거나, 경기가 안 풀릴 때 선수들을 다독이는 거죠. 사실 제가 주장이 된 지가 얼마 안됐어요. 지난해 12월 초쯤 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준다면 아직은 50점 정도?

Q. 나의 롤 모델과 라이벌이 있다면?

전북제일고 문진혁 선수가 제 라이벌이에요. 보고 배울 점이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자주 경쟁해온 사이예요. 롤 모델은 대성고 출신인 하남시청 신재섭 선수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의 핸드볼을 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Q. 우리 팀의 장단점은?

피지컬에서는 사실 큰 강점이 없어요. 대신 저희는 팀워크와 스피드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팀입니다.

Q. 나에게 핸드볼이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초등학교 4학년 겨울에 핸드볼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늘 해온 운동이고, 프로 리그가 생기면서 저에게 명확한 꿈을 만들어 준 운동이기도 해요. 꼭 프로 리그에서 뛰는 게 꿈이거든요. 이걸 그만두면 삶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Q.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한마디

부모님은 경기나 훈련이 있을 때마다 저를 격려해주시고, 건강 관리에도 언제나 도움을 주세요.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애들아, 우리 지난 시즌 성적이 많이 아쉬웠잖아. 올해는 더 뽕뽕 뭉쳐서 좋은 성적 내보자.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제33회 태인체육장학금, 한국 핸드볼 꿈나무에게 수여

핸드볼 꿈나무 선수들이 태인체육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돼 수여 행사가 진행됐다. (주)태인 이상현 대표(대한하키향회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는 지난 12일 14시 (주)태인 회의실에서 장리라 부회장, 안지환 운영본부장(이상 대한핸드볼협회), 태인체육장학금 핸드볼 부문 선정위원장인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학금 선정자 4인과 함께 장학금 수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태인체육장학금 핸드볼 분야에 선정된 선수들은 남한고등학교 안영웅, 청주공업고등학교 강륜현, 일신여자고등학교 김서진,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임서영이다. 안영웅은 “태인체육장학금에 뽑혔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며, 더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1990년부터 시작돼 33회를 맞이한 태인체육장학금은 핸드볼 분야를 포함한 산악, 양궁, 탁구, 역도, 육상, 하키, 배드민턴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 종목 선수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주체가 돼 체육 꿈나무 육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 사업은 사례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핸드볼 분야에는 현재까지 28명에게 2560만원을 지원했다.



류은희, 헝가리 교리와 2년 재계약

한국 여자핸드볼의 간판 류은희(33)가 헝가리 교리 구단과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교리 구단은 지난 2월 8일(한국시간) “올 여름에 교리와 계약이 만료되는 류은희와 2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다. 계약 형태는 1+1으로 2023~2024시즌은 계약을 보장하고, 2024~2025시즌은 옵션이다. 국가대표 에이스 류은희는 2019년 프랑스 1부 파리92를 통해 유럽에 진출했고, 2021년부터 교리 유니폼을 입었다. 류은희는 교리에서 통산 62경기에 출전해 168골을 기록했다. 교리 구단은 공식 SNS를 통해 “류은희는 워낙 열심히 하고 매사에 겸손한 선수”라며 “게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고, 핸드볼 지능이 높다. 이런 류은희와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극찬했다. 교리와 동행을 이어가게 된 류은희도 “교리와 계속 함께 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선수가 궁금했는데, 드디어 핸드볼코리아에서 인터뷰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촌데레 같은 매력, 그러면서도 핸드볼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열정에 푹 빠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지난 가을 김민서에 이어 이번 이혜원 선수 인터뷰도 인상 깊었습니다. 슈퍼루키 등장으로 한국 여자핸드볼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 기대하게 했어요. 핸드볼코리아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선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문예술>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핸드볼코리아 1·2월호(vol. 62)에 대한 의견을 3월 10일까지 이메일(77basket@daum.net)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핸드볼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HF OFFICIAL GAME BALL



[Size3] H3X5001-BW [Size2] H2X5001-BW
Synthetic Leather / Hand Stitched / Latex Bladder

한국 수입, 판매원
(주)믹스스포츠
070-4367-1482



NITRO ELITE

푸마의 혁신적인 미드솔 기술, 나이트로 폼
뛰어난 경량성과 반응성, 쿠셔닝,
그리고 높은 에너지 효율성 제공



DEVIATE NITRO 2



DEVIATE NITRO 2 WNS